

블랑팡, 고펜싸 팀과 모카란 프로텍션 소사이어티 협회의 협업 프로젝트인 첫 타마타로아 미션의 뒷이야기를 공개하다

블랑팡이 후원하는 타마타로아(Tamataroa,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큰귀상어(Great Hammerhead Shark)의 현지 이름) 프로젝트는 멸종 위기에 처한 큰귀상어의 생태 연구를 목적으로 3년간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와 상어의 이동 경로를 보호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블랑팡은 장 마리 장델(Jean-Marie Jeandel)이 이끄는 모카란 프로텍션 소사이어티(Mokarran Protection Society)와 함께 힘을 모아 로랑 발레스타와 고펜싸 팀이 만든 영상 블로그 시리즈를 공개한다. 앞으로 각각 2022년과 2023년에 두 번의 원정이 추가로 이어질 예정이다.

2014년 마크 A. 하이예크는 자격을 인증 받은 전문 다이버가 되었다. 자격증 획득을 위한 그의 마지막 테스트 다이빙 말미에 깊은 수심에서 거대한 큰귀상어(*Sphyrna mokarran*)가 갑자기 나타났고, Mr. 하이예크는 상당히 가깝게 지나가고 있던 그 상어와 짧은 눈빛 교환을 했다. 그곳을 수호하는 동물로 간주되는 상어와의 강렬한 조우가 블랑팡 대표이자 CEO인 그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개체수가 줄면서 멸종 위기에 처한 이 신비로운 상어종이 IUCN의 레드 리스트에 올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이 만남이 마지막이 되길 원치 않았다. 그 결과 블랑팡, 그리고 마크 A. 하이예크 개인적으로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다.

첫 단계는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현재 상황을 연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현지 협회 모카란 프로텍션 소사이어티(MPS) 창설을 후원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 곳은 큰귀상어에 있어 중요한 지역이지만 큰귀상어의 생태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는 바가 거의 없다. 모카란 프로텍션 소사이어티에서 처음 진행한 두 번의 관찰과 연구 미션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고, 이것이 로랑 발레스타와 그의 곰베싸 원정팀이 함께 하는 3 년간의 의욕 넘치는 프로젝트에 동기를 부여했다.

블랑팡에 의해 한데 모인 이 컨소시엄은 미국, 유럽, 호주의 저명한 상어 전문가들의 과학적 전문지식의 도움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곰베싸 IV 원정(700 Sharks into the Dark)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해당 원정을 통해 처음으로 그레이 리프 상어의 협동적인 사냥 습성을 밝혀낸 것을 포함해 의미 깊은 다수의 과학적 발견을 할 수 있었다. 유명한 *어둠 속 700 마리 상어(700 Sharks into the Dark)* 다큐멘터리 영상은 70 개 이상의 국제 어워드를 수상한 것을 비롯해 에미상 후보에도 올랐다.

새로운 프로젝트 타마타로아의 목적은 지식, 공감, 그리고 인지도를 창출하는 것이다. 또한 해당 지역과 국제 기관을 위한 구체적인 관리 도구를 만들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와 기타 다른 지역(큰귀상어가 이동을 하기 때문)의 큰귀상어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고자 한다. 이 상어와 다른 상어종 연구를 위한 혁신적인 연구 규약 뿐 아니라 청각 탐지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도 일조할 것이다.